

전통에서 창작까지 불교 무용 한자리에

구슬주머니 주최·조계종 후원, 제 1회 불교무용대전 개최



승무, 불교작법, 통도사 학춤 등은 불교 정신을 담은 전통춤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통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예술을 격려하고, 불교 예술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이 개최된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대표 이철진·사진)가 주최하고 한국춤예술센터가 주관하며 조계종 문화부가 후원하는 불교무용대전이 개최될 눈길을 끈다.

춤, 흥신자 씨의 춤 등은 불교 정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격려하고 장려하며 나아가 표교로까지 연결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이번 불교 무용대전은 각계에 흩어져 있던 불교 무용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무, 불교 작법 등 전통춤은 물론 불법승 소재로 하는 창작무까지 불교예술 한 단계 도약의 계기 마련 6월 19일부터 성균소극장서 공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창작춤에 관심을 갖고 안무를 구상한다고 해도 이를 무대에 올릴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무용대전을 계기로 신인발굴은 물론 각 사찰 등에서 불교 무용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은 4월 30일까지 공모접수에 들어간다. 승무 및 사찰학춤 등 전통춤은 물론 불교와 관련된 불법승 삼보를 소재 및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창작 춤을 대상으로 한다. 5월 중순 참가자를 선정해 6월 19일~7월 12일, 매



전통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예술을 격려하고, 불교 예술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이 개최된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통도사 학춤, 마곡 무용단의 창작 춤, 승무



터장 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조계종단을 통해 불교예술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02)747-5035

주 금·토·일요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한 달간 선정작을 공연한다. 또한 공모 작품은 전문 심사를 거쳐 대상(조계종 총무원장 상)과 작품상(사단법인 한국춤예술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빨주노초파남보'로 긍정 메시지 전해요

불자가수 남수란 새 앨범 발매 '어르신 음성공양' 보시행 실천도



'빨주노초파남보' 앨범 표지

“이 세상에 올 때는 그 누구라도 똑같은 모습인데 살다 살다 보니 빨주노초파남보 인생이더라/ 열만큼 배웠다고 묻지 마세요, 열만큼 가졌다고 묻지 마세요, 쉬어가는 인생길에 오늘은 비가 와도 내일은 아름다운 무지개가 뜰거야/ 웃으면서 살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빨주노초파남보 우리네 인생/ 빨주노초파남보 우리네 인생”

불자가수 남수란 씨가 '빨주노초파남보' (작사 남수란·작곡 최진우)메들리를 발매 출시했다. 남 씨가 직접 작사한 이 곡은 각자 다른 색깔로 살아가지만 어떤 모습이든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태어날 때는 누구나 빈 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제 각각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각자의 업이 다르니까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인생이 즐거워져요, 좀 더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불자라는 사실이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니까요.”

남 씨는 1993년 집 근처에 있는 화계사를 다니다 승산 스님과 차담을 하게 된다. 그때 스님에게서 '홍련화'라는 불명을 받았다. “당시 스님께서는 음성공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자가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불자가수 남수란 씨가 '빨주노초파남보' (작사 남수란·작곡 최진우)메들리를 발매 출시했다.

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셨죠. 지금도 어르신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승산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는 1997년 정유음반 1집 바람소리를 신곡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집으로 찬불 음반으로 냈어요. 이후 대중가요를 부르기도 했지만 제가 음반을 낼 때마다 찬불가 '산사의 아침'과 '오작교' 등은 항상 넣고 있었어요. 제가 불자가수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부처님 만난 것을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하는 그는 오늘도 '빨주노초파남보'를 노래하며 불심의 기운을 담은 긍정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정혜속 기자

의식과 무의식 사이 균형 화폭 속으로

스페이스선+ 레이시킴 개인전 4월 23일까지



스페이스선+는 불교적 禪을 기반으로 하는 레이시킴의 작품을 4월 23일까지 전시한다.

“禪은 마음의 흐름을 따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움직임은 혼란 그 자체와는 당연히 구별 됩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적절한 합의를 페인팅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레이시킴이 스페이스선+가 선정한 올해의 촉망받는 신진작가로 선정됐다. 이에 스페이스선+는 레이시킴의 개인전을 4월 23일까지 연다.

미국, 덴마크 등에서 수학하며 작품세계를 발전시켜 온 레이시킴의 작품 내면에는 불교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그녀의 예술적 화두는 승산 스님의 '모른다'이다. 그는 지식이나 무의식과 의식의 균형에서 발생하는 직관적인 '행'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반추하고 본질에 다가가려는 붓질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화폭 속으로 옮겨 오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붓과 푸른 캔버스 위에는 선들이 앞, 뒤를 알 수 없는 채로 화면 가득 겹쳐있다. 사방에서 중앙으로 뛰어든 선들은 거침없는 한 획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속력을 다해 달려오면서 여지없이 부딪히거나 아슬아슬 서로를 가로지른다.

이는 그녀가 작품에 담은 무의식과 의식의 균형을 찾아가는 순간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02)732-0732 정혜속 기자

100년 前 쌍계사 법당 지화 재현

정명 스님 지화장엄전 4월 14~18일

“정명 스님 지화장엄전”이 4월 14일~4월 1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불교지화장엄전 승회가 주최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조계종 문화부, 조계사가 후원하는 전시에서는 지화 전송의 맥을 잇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수륙재, 영산재 등 불교의 의례에 장엄되는 지화와 법당공양 지화, 근대 사진자료와 감로명화 속의 지화, 일상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화 등 총 50 종류가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점은 1916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고적도보>에 쌍계사 법당 불전 공양물의 사진자료를 토대로 작품이 제작되

었다는 점이다. 정명 스님(불교지화장엄전 승회 회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찰 스님들이 생화로 의례를 장엄하고 불전에 공양 올린다. 하지만 옛 고찰에서는 지화를 불전에 올리고 장엄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1916년 <조선고적도보> 자료 토대 불교의례 장엄 지화 50여 종 선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의 취지를 전했다.

지화, 괴화, 소목, 쪽 등의 천연염재로 물 들인 한지로 빛어낸 모란, 연꽃, 국화, 작약, 만행화, 진달래, 개나리, 배꽃 등 여러 종류의 꽃이 전시된다. 정혜속 기자



정명 스님의 지화장엄전 작품 사진

2559년 석가탄신기념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에 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특별한정판으로 생산되며 주문에 의해서 사찰에만 공급합니다.

■ 가격 : 15,000원 (초파일 이후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ihwa.com
02)3663-6777

능인향당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정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